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공화국의 위기, 현황과 과제
[발제자]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일 시] 2020년 08월 27일(목) 오전 10시
▶ 온라인 You Tube 영상



☒ 문자 후원
#7079-4545

제344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공화국이란 좋은 나라를 가리킨다. 공화국의 철학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기초로 하는 법치주의, 권력의 상호견제와 균형으로 권력 남용을 막는 混合政(혼합정), 예측적 지배 관계가 없는 상태의 非支配(비지배)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도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사랑의 애국심이다.

- 오늘날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공화주의 철학과 다른 대부분의 중요한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는 현상으로 대한민국의 공화정이 위기임을 시사한다.
- 정부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실천해야 한다. 선택적 정의는 법치주의의 적이다. 혼합정을 위해 청와대 정부를 넘어서야 한다.
- 공화혁명은 ‘한국의 꿈’이다. 공화의 시대정신에 시민이 응답해야 한다.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 공화국의 위기

- ◆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국정 원리이자 철학은 민주주의와 함께 공화국이다. 공화국은 좋은 나라를 의미한다.
- ◆ 공화국의 위기에 대한 자기 성찰적인 질문을 해보자. 법이 보편타당하고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는가? 권력의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공공선을 존중하는가?
- ◆ 이런 자기 성찰적인 질문에 흔쾌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면 공화국의 현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오늘날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삼권분립을 명백하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중요한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한국 공화정이 위기임을 시사한다.

◆ 공화정의 철학

가. 공화정의 역사

- ◆ 공화정은 로마공화정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공화정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를 갖고 있다. 로마공화정은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을 넘어선 혼합정으로 상호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했다. 흔히 미국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알고 있지만 기실 미국은 혼합정에 기반을 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공화정의 나라이다.

나. 법치주의

- ◆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있다. 법의 지배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달리 법에 의한 지배는 통치자나 지배 집단이 법을 내세워 피지배 집단을 강권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지칭한다.

마치 독재정치에서 법을 강조하며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법을 빙자해서 국민을 강권적으로 통치하면서 자기들은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부터 면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의 근본적인 취지를 위반한다.

다. 混合政(혼합정)

- ◆ 대한민국의 영어 명칭은 The Republic of Korea이며 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대한 공화국이다. 이렇듯 공화정이 국가의 핵심 정체임을 알 수 있다.
- ◆ 공화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Republic이다. Republic이라는 단어는 Res Publica를 영어화 시킨 것으로 ‘공공성’, ‘공적인 것을 믿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와 대립적 의미의 개념은 Res Privata로 ‘사적인 것’,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 Res Privata는 정의와 공정성이 유린당하는 현상, 권력 남용과 부패가 난무하는 상황이라는 의미이다.
- ◆ 混合政(혼합정)이란 권력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말한다. 권력을 단일화시키지 않고 쪼개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한 권력체제로 3권분립이 그 사례이다. 권력의 상호견제와 균형이 권력 남용과 부패를 막는다. 때문에 권력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를 철저히 마련하고 취지에 맞게 실천해야 권력 남용과 부패를 막을 수 있다.

라. 非支配(비지배) 자유

- ◆ 非支配(비지배)자유란 온전한 자유를 누리되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시민적 덕성을 갖추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보다 전 사회적인 공공선을 중시하는 훈련이 되어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화정에 부응한 삶이 실현될 수 있다.

마. 애국심

- ◆ 애국심은 시민적 덕목 중 하나이다. 인종이나 혈통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충성심, 귀속의식, 헌법에 따른 제도 등 자발적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나라사랑의 마음을 말한다.

◆ 현황과 개혁방안

가. 냉전 반공주의

- ◆ MAD(상호 확증 파괴)가 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한반도의 냉전 반공주의가 급속히 낡아가고 있다. 냉전 반공주의를 넘어서야 성숙한 나라가 된다. 현재 북한의 시장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을 바꾸는 유일한 평화적 길이다. 북한의 시장화로 인해 남·북 2국체제가 현실화 되고 있으므로 지금 상황

에서는 ‘남·북 두 주권국가 사이에 평화를 어떻게 뿌리내릴 것인가.’가 중요하다.

나. 천민자본주의

- ◆ 천민자본주의 극복이 성숙한 시장경제의 기초이다. 복지강화와 분배확대는 시대 정신이다. 로마의 공화정은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실패로 양극화되어 붕괴했고 미국은 경제공황에 따른 양극화로 중심정당이었던 공화당이 주변정당화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재벌이 독점하여 나라 경제를 키워던 시대도 있었다. 재벌 독점경제를 넘어서야 미래가 있다.

다. 정부와 시민의 과제

- ◆ 정부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실천해야 한다. 선택적 정의는 법치주의의 적이다. 혼합정(권력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청와대 정부를 넘어서야 한다.
- ◆ 오늘의 상황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형식적인 자유로움인지 아니면 정말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질문 해보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애국심과 시민적 덕성을 지닌 자유로운 시민으로써 공공선을 실현하고 있는지도 자문해보아야 한다.
- ◆ 대한민국의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은 상호보완적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좋은 나라’의 필요조건이며 공화혁명은 그 충분조건이다. 공화혁명은 ‘한국의 꿈’이다. 공화의 시대정신에 시민이 응답해야 한다.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다.

(한 통 2,000원)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